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유념품(有念品) ②

應時等行法 응시등행법
尼度老死憊 시도노사노비
比丘悟意行 비구오의행
當令應是念 당령응시념

때에 맞춰 바르게 법을 행하면
늙고 죽는 번뇌에서 벗어남이니
비구는 마음공부길을 깨달으면
마땅히 이런 생각에 응해야 한다

諸念生死棄 제념생사기
爲能作苦際 위능작고제
常當觀微妙 상당침미묘
自覺悟其意 자각오기의

모든 생각의 나고 죽음을 놓아버리

그것으로 괴로움의 끝을 삼으리니
항상 미묘한 마음작용을 들여서
스스로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

能覺者爲賢 능각자위현
終始無所會 종시무소회
以覺意能應 이각의능응
日夜務學行 일야무학행

“인자함으로 자신보고 성냄 참으면

가는 곳마다 근심없어 스스로 편안”

當解甘露藥 당해감로요
令諸漏竭盡 영제루득진

마음작용 능히 깨달으면 어질다 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무는 바 없이
깨달은 뜻으로써 능히 응하되
밤낮으로 힘써 배우고 행하여
마땅히 감로법의 요체를 알아
온갖 번뇌 다하도록 하라

夫人得善利 부인득선리
乃來自歸佛 내래자귀불
是當晝晝夜 시고당주야
常念佛法衆 상념법법중

무릇 사람이 좋은 이익얻으려면
스스로 부처님께 돌아가 귀의하라
이런 까닭에 마땅히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과 법과 대중을 생각하

라
已自知覺意 이지자각의
是爲佛弟子 시위불제자
常當晝晝夜 상당주야념
佛與法及僧 불여법급승

이미 스스로 깨달은 뜻 알면

龍眼

이를 부처님 제자라 하리라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과
법과 스님을 생각하되

念身念非常 염신념비상
念戒布施德 염계보시덕
空不願無相 공불원무상
晝夜當念是 주야당념시

몸을 생각하고 덧없음을 생각하며
계율과 보시와 덕행을 생각하고
공과 인욕음과 형상없음 등
밤낮으로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라

자인품(慈仁品) ①

爲仁不殺 위인불살
常能護身 상능신신
是處不死 시처불사
所處無患 소적무환

어질어서 살생하지 않고
항상 몸을 잘 닦으면
거기가 죽지 않는 곳
가는 곳마다 근심 없으니

不殺爲仁 불살위인
慎言守心 신언수심

서옹스님 (고불총림 방장)

“세상사 걸리지 않게 살다보면
생사 넘는 경지에 도달하니
약으로 건강 얻으려 마세요”

두달전에 산책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다리뼈를 상했어요. 병원에서 한달여를
입원해 있다가 요즘은 통원치료중인데
임초(상좌, 경기도 고양시 임초선사 주
지)가 대웅보전 낙성식을 한다가에 무리
를 해서 나와 봤어요.
내가 지금 여든 여섯입니다. 나이를 먹
어나간 뒤 피로해져요. 건강 생각해서 조
심 조심해서 생활해야지 무리하면 안 되
겠어요. 살아도 한복을, 죽어도 한복을
지만 주위에서 신경들을 너무 많이 써서
말이에요. 근데 건강이 약 먹고, 조심조
심한다고 지켜지나. 인간 세상에 걸
리지 않는 자유스러운 속에서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게 건강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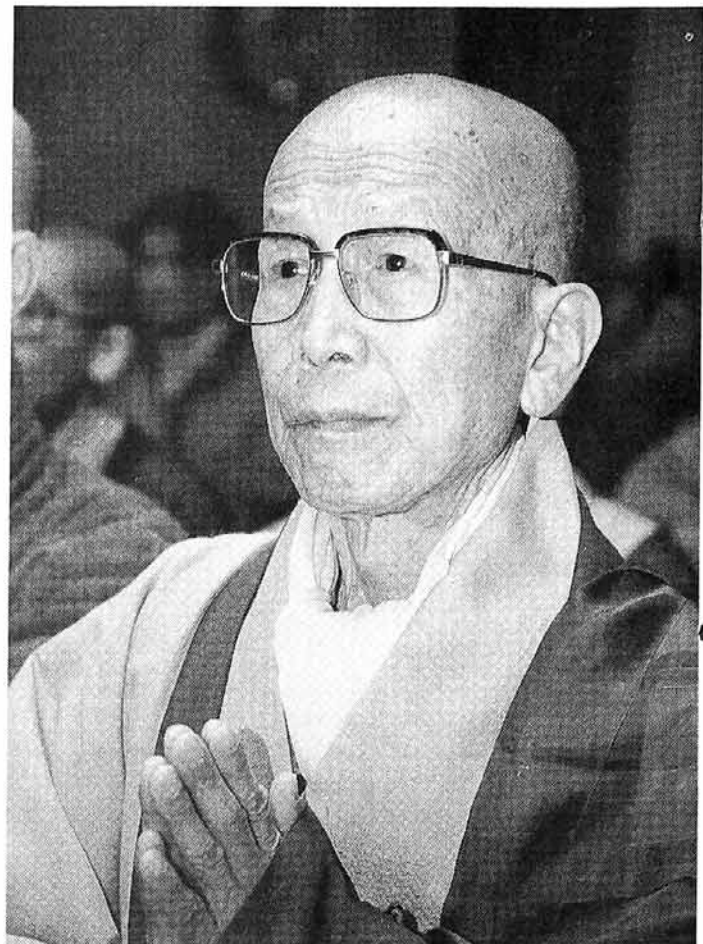
열일곱, 열여덟쯤 내가 양정고등보통학
교에 다니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얼마지나지 않아 조부님이 돌아
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있는지 철모를 때지만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간디 자서전
을 읽고 있었는데 간디가 존경하는 인물
로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도 그게 무엇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때였지만 부처
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인이라
고 소개가 되어 있던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는 운명적인 뜨거운 그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막연히 불교가 좋은 것이로
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교책을 찾아 읽
기 시작했고, 금세 매료됐죠. 누가 가르
쳐 주지 않아도 불교책을 읽다보니 인생
의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나는 그때 생각했
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라야 되고, 일본의 식민지로 고생하
고 있는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
는 것도 불교로구나 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동국대
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
습니다. 그러다 1학년 여름방학때 장성
백암사 만암스님(覺庵, 1876~1957)을 찾
아 입산했지요.

그때 만암스님이 불교가 발생한 인도
서천에서 불교적 생활을 하는 늙은이라
는 상징적인 의미의 서(西)자 옹(翁)자
를 써 서옹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

다. 출가하고서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
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거리를 다 공부라
생각하고 손이 부르드도록 일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모셨습니다. 그때
야 출다고해서 뜨거운 물에 손 담글 수
가 있나. 돌맹이로 얼음을 깨서 음식도
준비하고 양치, 세수도 해야 했는데 얼음
을 깨서 손에 대면 얼음이 푹푹 떨어질
정도였어요. 큰 스님(만암스님) 밑에서

- 1912년 충남 논산 생
• 1932년 장성 백암사 만암대중사
문화에서 득도
• 1941년 일본 동경 임제대 졸업
• 스리랑카 프리베디대학 철학박사
• 64년 동국대 선학원장
• 65~74년 동통산 무문관, 동화사,
백암사, 봉암사 조실 역임
• 74~79년 조계종 5대 종정
• 96~ 現 백암사 고불총림 방장
• 저서 <선과 현대문명> <절대현재
의 참사람> <임제록 연의>



얼음꺼서 음식만들고 세수하던
행자시절 초발심 생각하며
여든여섯 지금도 계율에 엄격

공부하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하루일 다
하고난뒤 참회의 절을 하느라 밤을 꼬박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복이 많
은 사람입니다. 제때 발심(發心)할 인연
이 와주었고 훌륭한 선지식을 모시고 수
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道)를 닦으면 발심이 가장 중요합
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도를 닦
는다면 나무와 돌도 비웃을 것입니다. 출
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수행하고자하는
이는 발심은 왜 하며, 도는 왜 닦아야 하
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 도를
닦는지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거들랑

우물쭈물하지 말고 곧바로 착수하십시오.
인생이 천추만세도록 살 것인다는 착
각에 이 생물체(生物體)를 믿고 기대를
거는 사람을 미혹한 중생이라고 합니다.
도를 깨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
냐'를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는 것이니
더 긴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심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구도자의 가장 큰 병은 도를 쉽게 얻으
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생사해
탈의 도리를 알려면, 천리 만리도 좋으니
선지식을 찾아가서 얻어야 합니다. 자기

병도 제대로 모르는 선지식에게 화두아닌
화두를 받아주고 일념 병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일생은 고사하고 한없는 세월 무
량길 지나도록 구제할 길이 없을 것입니
다. 아는 길일수록 묻지 않고 가다가 한
발만 헛 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수
이니 깨달은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참선이 무엇하는 겁니까? 의식과 무의
식을 초월한 참으로 인간 본래면목을 완
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은
부처님이 인간 근본 참다운 본래 모습을
깨달은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의식
과 무의식을 초월한 경지에까지 도달하
신 분이시죠. 나는 참선하면서 그 자유자
재한 참다운 인간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문은 의식으로 하지만 선(禪)은 세
간 공부와 달라요. 화두를 들고 의식하는
것은 의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생명체가 의심당여리가 되어 긴장하고
'일(-)'이라는 자리가 주체가 되어 통
일된 의식을 갖는 것인데 자유자재 해지
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1백m 경주를 할때

생활 속의 불교 (121)

구제 불능의 길을 어찌 스스로 따라가라.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
로 무엇을 근거로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할
지도 잘 모른다.

불법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불법은 사람이 있는 한, 생명체가 존재
하는 한, 심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식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살림
살이, 심계의 이법(理法)이 모두 다 불법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은 사생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불법의 진
수를 만나기란 몇 겹을 거치도록 쉽지 않
다고 한다. 불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
생이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
생이 스스로 불법을 특정한 가르침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불법과의 인연에 대해 흔히 세가지 어
려움이 거론된다.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
나기가 어렵고 살아가면서 불법의 가르침
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더라도 선지
식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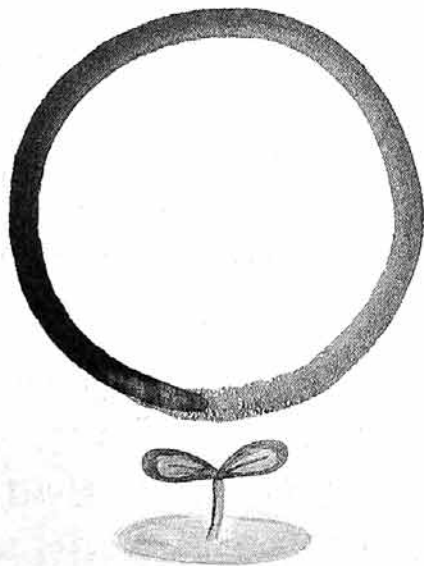
55억 인구가 많아보이지만 지구 상의 생
명체의 수에 비하면 한 줌에 불과하니 사
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 것은 사
실이다.

생명체의 살림살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가 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법(理法)
을 꿰뚫어보지 못하니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어찌다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들더
라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
으니 만나고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법구비유경을 보면 전생에 쫓벌레, 소
라고동의 몸을 거쳐 마침내 비구가 된 사
람의 얘기가 있다. 이 비구는 세가지 어려
움을 겪고 수행자가 되었으나 배불리 먹
고 덩굴며 소일하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
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에게 깨우칠
인연이 있음을 보시고 몸소 찾아가 경책
하는 법문을 들려 주셨다. 이에 비구는 크
게 감회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아라한과에
들게 되었다.

웬만한 불자라면 이 비구만큼은 못된다
해도 다 세가지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오늘



에야 비로소 해탈문 앞에 선 셈이 된다.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
이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
불법은 어디에나 있다. 하루 해가 뜨고 지
는 거기에다 불법이 있고 나의 한 생각 나
고 사라지는 거기에다 불법이 있다. 나의
들숨 날숨 가운데도 엄연히 불법은 존재
한다. 어디 그뿐인가. 내 주변엔 선지식들
이 많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도 선지식이
요 부모 자식도 선지식이다. 거리를 오가
는 사람들도 선지식이고 날 짐승 들
짐승 풀 한포기라도 내가 배우기로 하면
훌륭한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라
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세가지 어려움을
넘어 기회를 붙잡은 격이 된다. 불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한 것은 그 때문이다. 출신 성
분이나 성별, 학력이나 재력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부처 될 자격이 있
음도 그래서이다.

그런데 이 모처럼의 기회에 감사할 줄

스스로 닦지 않는 중생은 부처님이 바
로 옆에 계시도 구제받지 못한다. 물 가까
지 데라다 줄 수는 있어도 마시는 일 만큼
은 제 몫이다. 그런데 스스로 불자가 된 우
리가 불법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 선지식이 보기에 구제해야 할 한량
없이 축은한 중생이겠지만 스스로 평가해
보면 구제불능의 신세가 아니고 무엇이라.
혹은 사문이 되어서, 혹은 불법을 배우고
펼쳐 갔다는 불자로서 하필이면 구제불능
의 길을 따르겠는가.

협찬 : 이일용 · 이큰길